

온라인 극장으로 선보이는 <스카팽>의 다양한 정보를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극장 일정: 2021년 2월 19일(금)-20일(토)

영상 촬영일: 2020년 10월 25일(일) 19시 30분 공연



국립극단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 2020년
명동예술극장 대면공연 시
제작된 프로그램북을
일부 수정

원작. 몰리에르

스카팽:

Les Fourberies de Scapin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 스카팽 *Les Fourberies de Scapin*

원작 몰리에르 Molière

각색·연출 임도완

본 공연은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19년 9월 4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작가 소개	2
각색·연출가의 글	이 시대에 시인, 광인, 광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줄거리	6
인물관계도	8
출연진	10
작품 이해돕기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스카피노 ■ 김찬자
공연리뷰	사기꾼 캐릭터가 주는 웃음의 참뜻 ■ 송민숙
무대디자인 스케치	22
공연 스케치	24
연습 스케치	26
공연 연보	28
스태프 프로필	30
만드는 사람들	31

몰리에르

Molière. 1622~1673.

본명. 장-밥티스트 포클랭 Jean-Baptiste Poquelin



몰리에르_몰리에르의 초상.
Pierre Mignard의 유화, 17세기.

프랑스 '희극'의 시작, 최고의 극작가

비극만이 예술이라 평가받던 17세기,
풍자와 위트가 가득 찬 공연으로 연극사를 바꾸고 사회를
뒤흔들며 프랑스 '희극'의 출발점이라 평가받은
최고의 희극 배우이자 극작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이자,
전 세계 많은 극단에서 공연되는 작가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 받고 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딴 '몰리에르상'은
세계 연극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몰리에르상 Molière Award

1987년부터 매년 4~5월에 열리는 시상식으로 일명 '몰리에르의 밤'이라고 불린다. 프랑스 연극사에 비해 다소 늦게 제정된 몰리에르 어워드는 장-미셸 루지예르와 제롬 위로와 같은 사립 극장 대표와 비평가들이 주도해 만들어졌고, 2004년 이후에서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극장 대표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연극 관련 시상식과 비슷하게 남녀 주(조)연상, 남녀신인상, 올해의 연극(공연)상, 최우수 작가상, 최우수 연출상, 무대디자인상 외에 1988년에 만들어진 '최우수 지방분권 공연상(몰리에르 지역 연극상)'은 파리가 아닌 지역에서 상연되는 공연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이 외에도 '몰리에르 예상치 못한 상', '최우수 원맨쇼 상' 등 간헐적으로 기발한 이름의 상을 시상하기도 한다. 2006년부터는 모든 부분에 '최우수'라는 표현 대신 '몰리에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몰리에르상이 만들어질 당시 모든 프랑스 연극인들에게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까닭이다.

출처: 매거진 [더뮤지컬] 81호 '프랑스 대표하는 연극 공연상, 몰리에르상'

주요연보

1622	파리 출생
1640	오를레앙에서 법률학 공부
1644	‘몰리에르’라는 예명 사용하기 시작
1645	운영하던 극단의 빚으로 교도소에 투옥, 이후 파리를 떠나 지방 유랑생활 시작
1661	루이 14세로부터 인정받아 죽을 때까지 팔레 르와이얄 극장의 사용을 허가 발레-코미디 『웨방꾼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파리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시작
1662	아르망드 베자르 Armande Béjart와 결혼
1666	루이 14세의 죽음으로 2월까지 극장 운영 불가
1671	『프시케』 『스카팽의 간계』 등 발표
1673	『상상병 환자』 공연 중 쓰러진 뒤 집에서 사망
1680	몰리에르 극단은 ‘테아트르 드 마레’ 극단과 병합 몰리에르의 정신을 계승한 ‘코메디 프랑세즈 La Comédie-Française’ 창립

주요작품

희곡

〈날아다니는 의사〉 〈덤벙쟁이〉 〈사랑의 원한〉
〈사랑에 빠진 박사〉 〈우스꽝스러운 재녀들〉
〈아내들의 학교〉 〈타르튀프〉
〈사랑이라는 의사 인간혐오자 멜리세르트
앙피트리웅〉 〈수전노〉 〈푸르소냐크 씨〉
〈멋진 연인들 서민 귀족〉 〈프시케〉
〈스카팽의 간계〉 〈상상병 환자〉 외



코메디 프랑세즈 La Comédie-Française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극장으로, 자체 극단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극장이다. 1680년에 설립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극장은 몰리에르의 이름을 따서 ‘몰리에르의 집 La maison de Molière’이라고도 한다. 루이 14세는 당시 분열돼 있던 마레 극장과 부르고뉴 왕립극장을 통합하여 코메디 프랑세즈를 개관했다. 이후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1789년, 배우들이 수감되고 극장이 문을 닫았으나 1799년 새 정부가 재개관을 승인하였다. 극장은 1799년 이래 현재까지 건축가 빅토르 루이 Victor Louis(1731~1800)가 설계한 건물을 공연장으로 사용한다. 고전극 중에서도 비극 상연을 의무로 하지만 근대의 명작도 소개한다. 오늘날 극장은 3,000개가 넘는 상연 목록을 갖고 있다. 설립 이래 극단에 등록된 작가는 무려 1,000명 이상이며, 그 중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은 단연 몰리에르의 작품이다. 총 33,400여 회의 기록을 갖고 있는 몰리에르의 작품 중에서도 1위는 〈타르튀프〉, 2위는 〈수전노〉, 3위는 〈상상병환자〉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코메디 프랑세즈’ 외

이 시대에 시인, 광인, 광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작품 〈스카펄〉을 다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연출로서 영광이고 또 매우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2019년에 많은 분이 〈스카펄〉을 사랑하고 성원해주신 결과입니다. 관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 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겠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마스크의 일상화, 대면,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나 관객을 직접 만나야 하는 연극종사자들의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은 매우 극심합니다.

재공연을 준비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8시간씩 연습했는데, 본 작품은 움직임도 많고 대사의 속도 또한 매우 빨라 연기자들이 연습 중에 호흡곤란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각색·연출—임도완 Im Do-wan

연극

〈한여름 밤의 꿈〉 〈굴레방다리의 소곡〉 〈보이책〉
〈카프카의 소송〉 〈휴먼코메디〉 〈크리스토퍼 논란클럽〉
〈죄와 벌〉 〈하녀들〉 〈왕벚나무 동산〉 〈장님들〉
〈그놈이 그놈〉 〈타이피스트〉 〈스펙트럼 2001〉
〈두문사이〉 외
뮤지컬
〈이른 봄 늦은 겨울〉 〈기발한 자살여행〉
〈벽을 뚫는 남자〉 외
창작가무극
〈가은: 세상의 시작〉 외

수상

2015 FAD Sebastia Gasch Awards ‘Joan German Schroeder’ International Applause 〈Les Bonnes(The Maids)〉
2007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공연 베스트7’ 선정 〈보이책〉
2007 한국공연예술협회 ‘올해의 예술인상’ 수상
2007 에딘버러 페스티벌 ‘헤럴드 엔젤어워드’ 수상 〈보이책〉
2007 에딘버러 페스티벌 ‘토탈씨어터 어워드’ 피지컬 씨어터 부문 수상 〈보이책〉
2007 에딘버러 페스티벌 ‘BBC 올해의 Top 10’ 선정 〈보이책〉
2006 제42회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 수상 〈왕벚나무 동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거리두기의 단계가 완화된 ‘무대에서 직접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한 가지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연극은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야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또, 우리가 준비한 시원한 웃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술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환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다지요, ‘시인, 광인, 광대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이들이다.’ 이 시대에 시인, 광인, 광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해왔던 그대로 고통과 환희와 수많은 외침과 역설과 풍자와 패러디의 향연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극장에서 직접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느끼셨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동이 빛나간 사람일수록
맨 먼저 남을 모략한다.
”

— 몰리에르

“우리가 곤란할 때 언제나 멋지게 도와줄 사나이”

막이 오르면 작가 몰리에르가 무대 위에 등장한다. 몰리에르는 자신과 작품 그리고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다 같이 노래를 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재벌가인 아르강뜨와 제롱뜨는 자식들의 정략결혼을 약속하고 여행을 떠난다. 그 사이 둘의 자식들은 각자 신분도 모르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진다. 부모의 정략결혼 약속을 알게 된 두 자식들은 제롱뜨의 하인 스카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렇게 젊은이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사심을 담은 스카팽의 계략이 시작된다...

“He comes to our rescue whenever we’re in trouble!”

When the curtain rises, playwright Molière appears on stage. He introduces himself, his work and the main characters. Then the story takes off, as everyone in the audience is invited to sing together. Two wealthy persons, Argante and Géronte, plan an arranged marriage between their respective children, before setting out on a journey. During their absence, the two children in question each fall in love with someone from an ambiguous background. When they learn of their parents' marriage plans for them, they turn to Scapin, servant to the household of Géronte, for help. Scapin thus devises a clever strategy to save the day for the young lovers, though not entirely without ulterior mo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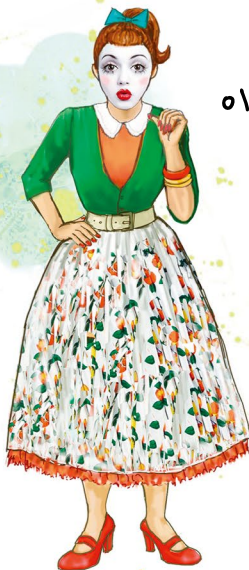


?

아르강뜨



이아상뜨



아들

연인

옥따브



유모

하인

네린느



실베스트르



?

몽리에르



제롱프



아들

레앙드르



연인



제즈비네프

하인

스카펄



?

가르르



이미지 제공: 유미양 의상디자이너



이중현 Lee Jung-hyun

스카팜 Scapin

연극

〈한여름 밤의 꿈〉 20, 18 | 보텀 | 밀양아리랑예술센터 대극장 외
 〈화성은 빨강지 않다〉 19 | 정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14, 11 | 김두철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보이책〉 19, 13 | 중대장 | 명동예술극장 외
 〈관속에 갇혀 매장 당하는 6인의 이야기〉 17 | 장석태 |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휴먼코메디〉 12 | 춤선생 | 여수엑스포 천막극장
 〈죄와 벌〉 12 | 라즈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경멸에 대한 경멸〉 11 | 코러스 | 서대문 문화회관대극장
 〈그 놈이 그 놈〉 10 | 나레이터 | 알과핵 소극장
 〈왕벚나무 동산〉 10 | 김문옥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뮤지컬

〈시간의 사육〉

성원 Sung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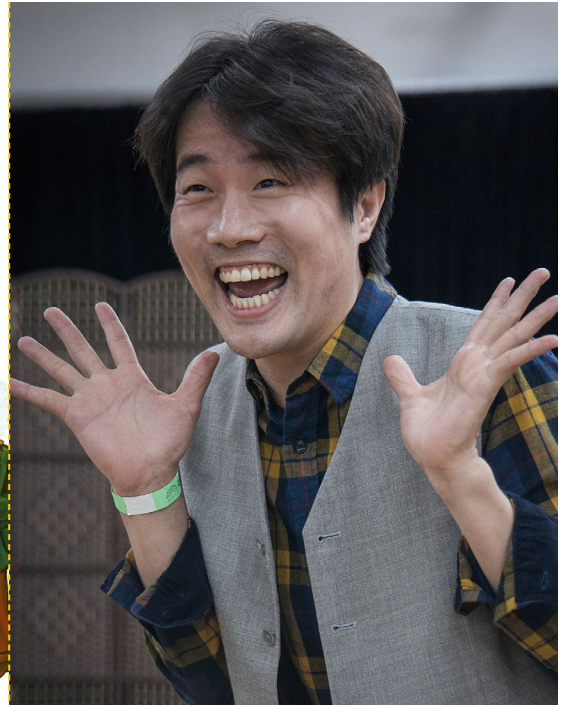
몰리에르 Molière

연극

〈한여름 밤의 꿈〉 20, 18 | 보텀 | 밀양아리랑예술센터 대극장 외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16, 14 | 김한철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보이척〉 19, 13 | 악대장 | 명동예술극장 외
 〈노란 달〉 18 | 프랭크 | 상명아트홀
 〈관속에 갇혀 매장 당하는 6인의 이야기〉 17 | 민영화 |
 동송아트센터 꼭두소극장
 〈카프카의 소송〉 17, 16, 15 | 변호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휴먼코메디〉 15, 13 | 사진사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크리스토퍼 놀란 클럽〉 14 | 조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죄와 벌〉 12 | 라스콜리니코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왕벚나무 동산〉 10 | 거지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뮤지컬

〈시간의 사용〉 〈버스〉 외



박경주 Park Kyung-zoo

실베스트르 Silvestre

연극

〈한여름 밤의 꿈〉 19 | 엉덩이 닉 보텀 | 명동예술극장
 〈보이지 않는 도시〉 19 | 개발업자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갈릴레이의 생애〉 19 | 루도비코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박정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장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르투르 외 | 명동예술극장
 〈한밤의 사람들〉 18 | 완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BJ 파우스트〉 17 | 파우스트 외 |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4관
 〈페스카마-고기잡이 배〉 17 | 갑판장 | 동양예술극장 3관
 〈도화만발〉 11 | 선비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연기상 〈BJ 파우스트〉

이호철 Lee Ho-cheol

옥파브 Octave

연극

〈시라노 콤플렉스〉 20 | 시라노 | 산울림 고전극장
 〈한여름 밤의 꿈〉 19 | 테세우스 외 | 명동예술극장
 〈빠의 기행〉 19 | 황가 외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오솔로〉 18 | 론 폰닥 외 | 명동예술극장
 〈얼굴도둑〉 18 | 남자친구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카프카의 소송〉 17, 15 | 요제프K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거인이 걸어오고〉 17 | 거인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크리스토퍼 논란클럽〉 17, 14 | 하비 덴트 | CKL스튜디오 외
 〈굴레방다리의 소곡〉 16 | 김대식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스튜디오
 〈휴먼코메디〉 15, 13 | 아들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보이척〉 13 | 의사 | 명동예술극장 외

외



이유진 Lee Yoo-jin

이아상뜨 Hyacinthe

연극

〈불꽃놀이〉 20 | 광옥 외 | 온라인극장
 〈화전가〉 20 | 박실이 | 명동예술극장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19 | 멀티 | 알과핵 소극장
 〈나팔봉〉 19 | 유소령 부인 외 | 동양예술극장 3관
 〈가족연극〉 19 | 미정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취버영감의 소집영장〉 18 | 데츠상사 | 후암스튜디오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18 | 약방녀 외 | 남산예술센터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18 | 사촌형수 외 | 동양예술극장 3관
 〈내일은 내일에게〉 18 | 마농 외 | 대학로 파랑씨어터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17, 16, 15 | 검은 여자 | 밀양연극촌 스튜디오 외

외

수상

2019 신춘문에 단막극전 우수연기상 〈가족연극〉





홍승균 Hong Seung-gyun

레안드르 Lèandre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11 | 김한철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보이책〉 19, 09 | 보이책 | CKL 스테이지 외
 〈인형의 집〉 18 | 랑크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속에 갇혀 매장 당하는 6인의 이야기〉 17 | 석영현 |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휴먼코메디〉 15, 08 | 사진사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서툰 사람들〉 12-13 | 장덕배 외 | 코엑스 아트홀 외
 〈왕벚나무 동산〉 10 | 이일봉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09 | 군사 | 명동예술극장
 〈갈매기〉 08 | 야꼬프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레이디 맥베스〉 08 | 시종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외



윤세인 Yoon Se-in

제르비네트 Zerbinette

연극

〈한여름 밤의 꿈〉 20, 18 | 허미아 | 밀양아리랑예술센터 대극장 외
 〈8시에 만나〉 20 | 풍 | 굿씨어터
 〈버티고〉 19 | 2 | 선돌극장
 〈수궁가가 조아라〉 19 | 입담자라 | 나온씨어터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 김리 | 예그린씨어터
 〈보이책〉 19 | 코러스 | CKL 스테이지
 〈친구를 만들고 죽이는 방법〉 18 | 샘 | 언더스탠드예비뉴
 〈휴먼코메디〉 18, 17 | 엄마 외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스튜디오
 〈더 버스〉 16 | 코러스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스튜디오

오페라

〈베르테르〉





문예주 Moon Ye-joo

아르강뜨&네린느(더블캐스트) Argante&Nérine(Double Cast)

연극

〈불꽃놀이〉 20 | 다희 외 | 온라인극장
 〈화전가〉 20 | 금실이 | 명동예술극장
 〈보이 겟츠 걸〉 17 | 테레사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맘모스 해동〉 16 | 부인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킬리콜라〉 14 | 케레아 | 학전블루소극장
 〈당통의 죽음〉 13 | 철리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부활〉 13 | 마담 마리에프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꿈속의 꿈〉 11 | 보희 | 남산예술센터
 〈오늘 손님 오신다〉 09 | 손님 | 남산예술센터
 〈서른두살, 원혜〉 06 | 원혜 | 연우소극장
 외



권은혜 Kwon Eun-hye

아르강뜨&네린느(더블캐스트) Argante&Nérine(Double Cast)

연극

〈불꽃놀이〉 20 | 세영 | 온라인극장
 〈안티고네〉 19 | 이스메네 | 강동아트센터
 〈7번국도〉 19 | 용선 | 남산아트센터 드라마센터
 〈원이엄마〉 18, 16, 15 | 몽태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외
 〈드라곤 킹〉 19, 18 | 연기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로미오와 줄리엣〉 18 | 벤볼리오 | 강동아트센터 외
 〈미녀와 야수〉 17 | 원송이 집사 | 강동아트센터 외
 〈더 정글북〉 18, 17, 16 | 모글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18, 14 | 고양이 외 | 산울림 소극장 외
 〈춤추는 민원실〉 12 | 춤추는 소녀 |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별우리극장
 외



김명기 Kim Myeong-ki

제롬뜨 Jéronte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0, 18, 17, 15 | 신오 외 | 명동예술극장
 〈이갈리아의 딸들〉 19 | 브리또 베르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나는 살인자입니다〉 19 | 다역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산책하는 침략자〉 18 | 쿠루마다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모던타임즈〉 18 | 사장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클라우드 나인〉 17 | 아내 | 노을소극장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 17 | 우디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리처드 3세〉 17 | 조지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탈출, 날숨의 시간〉 16 | 석철 |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꿈의 아내〉 16 | 역장 | 남산예술센터 외
 외



김요찬 Kim Yo-chan

음악감독(연주자) Musician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14 | 음향디자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크리스토퍼 논란클럽〉 17, 14 | 음악감독 및 연주자 | CKL스테이지 외
 〈노래하듯이 햄릿〉 15 | 음향디자인 | 백성희장민호극장
 〈카프카의 소송〉 15 | 음향디자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바후차라마타〉 14 | 음향디자인 | 남산드라마센터
 〈보이책〉 13, 08 | 음향디자인 | 명동예술극장 외
 〈휴먼코메디〉 13 | 음악감독 및 연주자 | 명동예술극장 외
 〈죄와 벌〉 12 | 음악감독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하녀들〉 11 | 음향디자인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왕벚나무 동산〉 10 | 음향디자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뮤지컬

〈헤드워〉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 〈주유소 습격사건〉 외

수상

2019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스카펄〉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스카피노

김찬자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스카피노.

J. Callot의 Balli di sfessania,
1622경.



나폴리, 가면 쓴 노인들, 두 쌍의 연인, 젊은 연인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들, 주인을 속이고 골탕 먹이며 연인들을 도와주는 꾀 많고 술책에 능한 하인. 몰리에르의 〈스카펑의 간계(원제)〉는 16세기 대중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풍 계락희극이다. 중심인물 스카펑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교활하고 자유분방한 하인 스카피노(Scapino 또는 Scappino)라는 인물에서 유래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6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3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사랑을 받은 서양 대중문화의 대표적 예가 되는 연극 양식이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명칭은 '전문배우들이 하는 연극'을 의미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각 극단들은 10~20여 명의 배우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함께 살고, 함께 작업하고, 함께 순회공연을 다녔다. 각 배우들은 고유한 가면, 옷과 성격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고정된 배역을 맡았으며, 간략한 개요를 중심으로 하는 대본을 바탕으로 즉흥극을 했다. '유형'으로 구분되는 인물들과 어릿광대짓을 동반한 벌레스크한(Burlesque) 상황을 기본으로 텍스트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볼거리의 의미에서 조화를 보여주는 연극을 만들고자 한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계층의 구별 없이 광범위한 일반대중을 관객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3세기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폭 넓게 발전했다. 이 연극은 1570~1571년 카테리나 디 메디치, 이어서 앙리 3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들어오며 프랑스 연극으로 스며들었고, 특히 그 유형적 인물들은 프랑스 무대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생명을 이어가고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큰 미학적 원칙 중의 하나는 '유형'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존재이다. 대표적인 인물 유형으로는 두 노인 판탈로네(Pantalone)와 박사(Il Dottore), 우아한 한 쌍이나 두 쌍의 젊은 연인(Innamorati), 허풍쟁이 대장(Capitan), 희극적 하인과 하녀 등이 있다. 베니스 출신의 부유한 상인 판탈로네, 요란하고 말이 많은 볼로냐 출신 박사, 베르가모 인근 마을에서 농부들의 상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는 베르가모 출신의 하인들, 토스카나 언어를 사용하는 우아하고, 젊고, 순수한 연인들, 길과 카바레를 돌아다니며 미인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공적을 노래하는 대장. 이 각 인물들에는 독특한 개인적 성격, 전통에서 비롯된 지역적 특성,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사회적 유형이 복합되어 있다. 고정된 성격으로 정형화된 그들은 변함없는 줄거리를 통해 하나의 유형을 형상화하고, 각자의 고유한 옷과 가면, 독특한 연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시각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정형화되었다. 그들을 통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나이불문의 인간의 약점이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한 극단이 수십 년 동안 이 고정된 속성을 지닌 동일한 유형의 인물을 내세울 뿐 아니라 다양한 극단들이 전부 동일한 유형의 인물들을 내세운다. 그러다보니 각 배우들은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배역을 맡아서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고유한 유형으로 정형화된 인물들은 세



코메디아 델라르테_이탈리아 가면들. G. Gallina의 채색 그라비아, 19세기.

■ ‘아르테 Arte’는 ‘기술’,
예술의 ‘기법’, ‘직업’을 의미한다.

■ **벌레스크 Burlesque**
버라이어티 쇼 등을 상연할 때
막간에 끼워 넣는 풍자극

대로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삶의 여러 면을 수용할 수 있는 민중적 범주를 형성한다.

이 정형화된 유형들 가운데 특히 오래도록 남아 사랑받고 프랑스풍으로 변형을 거듭한 것은 하인 유형의 인물들이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하인들은 두 유형의 인물들로 구분된다. 첫째는 꾀 많고 교활한 유형으로 브리젤라, 스카피노, 벨트람, 플라우티노, 메제티노 같은 인물들이 있으며, 둘째는 우둔한 바보 유형으로 아를레키노, 페드로리노, 투르팔디노, 프리텔리노 같은 인물들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게으르고’, ‘바탕이 무지하며’, ‘한없이 외설적’이던 아를레키노는 프랑스에서 ‘아를 르캥’이라는 이름을 얻고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되고, 민첩한 인물로 변화되며 대중적 명성을 누린다. 스스로 자신의 가족은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보들’이라고 밝히는 또 다른 어리석고, 무지하며, 요령부득인 하인 페드로리노는 프랑스에서 ‘피에로’라는 이름으로 천진난만하고, 정직하고, 감성적인 인물로 변화된다. 그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피에로라는 찬사를 받은 가스파르 드뷔로 Gaspard Debureau와 그의 아들 샤를 드뷔로 Charles Debureau의 팬터마임과 함께 되살아난다. 피에로는 드뷔로의 재창조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인 페드로리노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영화 〈천국의 아이들〉(1945)에서 장 루이 바로의 마음을 통해 사랑에 빠져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감성적인 피에로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첫 번째 유형의 하인에 속하는 스카피노는 하인 계보에서 브리젤라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다. 브리젤라는 ‘논쟁’, ‘계략’을 뜻하는 이탈리아 단어 ‘브리가Briga’에서 유래한다. 베르가모 아랫마을 출신 아를레키노보다 비교적 머리가 깨어있고 좀 더 똑똑하다고 평판이 나있는 베르가모 윗마을 출신인 브리젤라는 음모와 계략, 속임수에 뛰어난 인물이다. 아를레키노와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꾀 많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이지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천진난만하고 인정이 가는 아를레키노와는 달리 좀 더 치밀하고 계략에 능한 인물이다. 아를레키노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자기 머리를 믿고 혼자 일을 수행하기를 좋아한다. 사랑의 계략이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물로 냉소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다. 매부리코에 올리브색이 도는 가면을 쓰고 고양이 수염을 한 그가

슬그머니 다가올 때 연인들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고 경계를 한다. 결혼을 망쳐놓거나 일을 뒤집어놓거나 연인들을 밀고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브리젤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피노는 브리젤라보다는 덜 음흉하고, 덜 냉소적인 인물이다. 브리젤라가 칼을 휘두를 곳에 순발력 있는 다리를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인물이다. 그는 찌르레기와 흡사하다. 재잘거리고, 여기저기서 좀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갔다가 늘 되돌아온다. 스카피노는 이탈리아어 ‘Scappare’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이는 ‘도망가다’라는 뜻이다. 나쁜 짓을 하고는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단순한 해결법을 선택하는 인물의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다. 그는 생각을 깊이, 조리있게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구걸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봄날 새들처럼 사랑에 빠지는데 그에게는 그 봄날이 일 년 내내 지속된다. 그는 아무것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며, 새처럼 즐거움을 위해 사랑에 빠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옮겨 다니며 뒷생각 없이 자신의 가벼운 뇌의 충동을 따른다. 노력하지 않는 거짓말쟁이지만 그 거짓말도 그의 성격처럼 아무 중요성이 없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희극적 유형의 하인들은 프랑스로 와서 모두 더욱 개화되고, 세련되고 계략이 뛰어난 하인들로 변화된다. 도미니크라는 이름으로 파리에서 아를르캥 역할을 하던 이탈리아 배우 비앙코렐리D. Biancoielli는 프랑스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되고, 지적이고, 우아한 태도와 신랄한 언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인물을 변화시켜서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음흉한 브리젤라와 술책을 부리지만 어리석은 구석이 있는 스카피노는 몰리에르를 통해 덜 음흉하고 더 민첩한 하인 스카팽으로 거듭난다.

몰리에르는 파리에 정착해서 고정적으로 공연을 올리는 이탈리아 배우들과 1662년부터 1673년까지 처음에는 루브르의 맞은 편 프티 부르봉Petit Bourbon 극장, 다음에는 팔레 루아얌Palais Royal 극장을 나눠서 썼다. 그들과의 만남은 몰리에르에게 가면 유희의 기술, 라씨 사용, 즉흥극을 기본으로 하는 몇몇 상황의 모방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무대 미학을 자기 작품들에 투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



보다 이탈리아의 전통적 희극 유형들의 보고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오라스’, ‘렐리’, ‘레앙드르’, ‘옥타브’, ‘이사벨’, ‘코비엘’, ‘트뤼팔당’, ‘스카팽’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연인들과 하인들, 스가나렐, 아르놀프, 아르파공, 알세스트 아래로 드러나는 베니스인 판탈로네의 투박한 모습 등 그의 인물들에서 이탈리아적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몰리에르가 스카팽 인물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은 배우이며 작가인 벨트람 Beltrame, N. Barbieri이 1629년 토리노에서, 1630년 베니스에서 출판한 〈경솔한 사람 혹은 난처한 스카팽과 고통 받는 메제탱 Inavertito o vero Scapino disturbato e Mezzetino travagliato〉(1629)인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를 무대로 노예인 ‘셀리아’를 사랑하는 ‘폴비오’와 ‘생티오’, 그중 폴비오는 간계의 왕인 자기 하인 스카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 작품은 교활한 모사곤 하인 유형들 가운데 스카팽에게 최고의 주도권을 부여한 작품이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에 와서 더욱 영리하고, 더욱 똑똑하고, 더욱 치밀한 하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몰리에르는 스카팽을 작품을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인물로 정신의 민첩성만큼이나 몸도 민첩하다. 자신의 재능으로 행동의 주도권을 쥐는 하인으로 지휘하고, 명령하고, 승리한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수완가이고, 젊은 연인들을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 기상천외한 간계를 쓰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기도 한다. 그는 개인적이며 다소 부정적인 인물로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희를 이끄는 연출가이다. 작품의 희극성은 스카팽이 하인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인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서슴지 않고 복수하려고 한다. 이 작품은 출생, 부, 사회의 계급보다 지성에 우위를 부여한다. 〈스카팽의 간계〉가 고전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작품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이다.

하인은 희극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고대부터 꽤 많고 술책에 능한 하인들은 희극의 소재가 되어왔다. 고대 테렌티우스, 코메디아 델라르테뿐만 아니라 코르네유, 스카롱, 몰리에르, 르사주, 마리보, 보마르세 같은 프랑스 작가들이 포르미오, 아를레키노, 페드로리노, 브리젤라, 스카피노, 크리스팽, 프롱탱, 파스캥, 마스카리유, 그로-르네, 피가로, 스카팽 등과 같은 많은 다양한 하인들의 이름을 공공의 기억에 남겼다. 스카팽은 이 하인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 명성을 누리게 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스카피노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하인 일을 하다가 프랑스에 와서 사기를 치는 나쁜 충고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몰리에르는 술책을 부리지만 경솔하고 우둔한 데가 있던 그를 프랑스로 귀화시켜 덜 상투적으로 만들고 더욱 응축시켜 젊은 연인들의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지배계층을 골탕 먹이는 최고의 계략가, 자유로운 감성이 펄떡이는 자신만의 창조물로 만든다. 〈스카팽의 간계〉라는 계략희극 걸작에 단 한 번 투여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확립된 역할은 이제는 프랑스의 자산이며 소유가 되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몰리에르와 함께 문학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탈리아 전통을 통해 고착된 유형적 인물을 관찰하며 두 문화의 중심에 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지닌 인물 유형을 만들어내었다. 그는 가끔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지나치게 확장하기도 했지만, 프랑스 작가들 중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근본으로 이해한 첫 작가였다.

사기꾼 캐릭터가 주는 웃음의 참뜻

국립극단 〈스카팽〉

송민숙
연극평론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스카팽〉의 원제는 ‘스카팽의 간계(Les Foberies de Scapin’, 즉 주인공 스카팽이 사기를 친다는 뜻이다. 원작자 몰리에르는 십여 년간의 오랜 지방순회공연을 마치고 1658년 다시 파리에 정착한다. 이때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 코메디아 델라르테 극단과 뿌띠부르봉 극장을 나누어 쓰게 된다. 몰리에르는 그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희극의 전통을 자신의 창작극에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소극笑劇 〈스카팽의 간계〉(1671)이다. 그의 대희극 〈수전노〉(1668)에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있다.

피바른 하인 스카팽은 아버지들의 방해로 곤경에 처한 젊은 연인들을 돕는다. 이 때 스카팽의 희생양이 되는 주인(아버지)들이 바로 제롱뜨와 아르강뜨다. 이들은 서로 사돈을 맺고자 자식들에게 억지결혼을 시키려 하는데 아르강뜨의 아들 옥따브는 이아상뜨와 이미 혼인을 했고, 제롱뜨의 아들 레앙드르는 집시여인 제르비네뜨와 사랑에 빠져있다. 이들 연인들이 스카팽의 도움으로 아버지들에게서 필요한 금전을 얻어내거나 이아상뜨와 제르비네뜨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줄거리다. 스카팽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언변으로 옥따브와 레앙드르의 아버지들을 설득한 끝에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되갚기도 한다. 17세기의 몰리에르가 21세기 우리관객에게 웃음을 통해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각색 〈스카팽〉

〈스카팽〉이 원작과 다른 점은 작가 몰리에르가 동명의 등장인물로 나온다는 점과 아르강뜨를 여성으로 바꾼 것이다. 붉은 바탕의 거대한 무대 막에는 아르랑크 가면을 쓴 배우의 얼굴과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공연이 시작되면 가발에 붉은 옷을 입고 아르랑크 가면을 쓴 인물 ‘몰리에르’가 무대중앙에 혼자 등장한다. 그는 원작자이자 뛰어난 희극배우인 몰리에르의 장기라는 희극적 몸짓과 특유의 동작들을 하며 긴 서사로 무대를 연다. 이어서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관객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한쪽에 앉아서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며 파지를 남발한다. 또는 구멍 난 그의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무심코 “연결해.”라고 지시하며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는 홀연히 사라진다. 이때 당황해하는 배우들의 모습 또한 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틈새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색다른 웃음의 원천이다.

〈스카팽〉을 공연하는 배우들은 무수한 몸짓언어로 매 상황을 아크로바틱하게 풀어낸다. 이들의 지난한 연습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속사포 랩으로 대사를 처리하기도 하고 ‘빌리진’ 음악에 마이클 잭슨의 몸짓을 엮거나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파게노의 노래를 인용하며 관객에게 인지의 즐거움을 준다. 또한 ‘땅콩회항’을 상기시키는 상황을 희극적으로 풍자하며 지금 현재 시점의 관객의 기억을 다양하게 건드린다. 또한 잦은 장면회상을 통해 다양한 극중극으로 극 속에 과거의 다른 시간대를 도입하며 유쾌한 장면변화를 만든다.

특히 특정대사에 특정동작을 연결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관객의 기억을 마치 일종의 라이트모티프처럼 웃음을 위해 활용한다. 대사와 몸짓을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제롬프의 대사 “도대체 군함에 왜 탔어?”이다. 스카팽이 제롬프에게서 돈을 갈취하고자 아들 레앙드르가 갤리선에 납치되었다고 속일 때 수차례 반복된다. 이는 몰리에르의 대사 “연결해”의 반복적 사용과 더불어 관객에게 큰 웃음을 준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고유한 아르랑크의 반 가면은 인물 몰리에르만이 유일하게 착용하고 있지만 여타 모든 배우들의 얼굴에 하얀 분장을 칠함으로써 가면의 전통을 대신한다. 아르강뜨를 샤넬풍의 정장을 한 여성으로 설정하거나 위로 뽀족하게 솟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사기꾼 까를르를 몰리에르가 일인이역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한다. 배우들이 무대전면으로 밀고 나오며 등장하는 일종의 ‘수레 무대’는 이와 더불어 13년이라는 세월동안 지방순회공연을 하며 산전수전을 겪었을 작가 몰리에르의 전기를 떠올리게 한다.

세로로 길게 늘어진 가림 막들은 인물들의 등장과 퇴장을 손쉽게 소화했고 높낮이가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도 연출자가 이끌어온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무대 그림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었다. 무대를 현장에서 라이브로 동반한 음악과 사운드 또한 배우들이 직접 연주한 악극단에 생기를 더했다. 총알 피하는 장면에서 영화 매트릭스를 패러디하거나 익숙한 음악을 인용하는 등 관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사심 없이 관객에게 재미를 주는 무대였다.

스카팽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하인그룹이지만 누구보다도 영리하며, 지배자이자 억압의 표상인 주인(아버지) 그룹을 속이고 논락하는 통렬한 풍자가 주는 통쾌함을 보여준다. 배우들의 잘 훈련된 신체언어는 그런 통쾌함을 동반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스카팽은 그가 행한 모든 사기극에서 발각이 되자 자해연극을 하며 주인(아버지)들의 용서를 구한다. 이 또한 그가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사기이자 설득의 전략이다. 이번 공연에서 굳이 흠을 찾자면 프로시니엄 무대의 딱딱한 분리감을 파기할 색다른 공간적인 시도는 모색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될까? 스카팽을 중심으로 배우들의 연기양상불이 전체적으로 훌륭했다. 모처럼 공연시간 동안이라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무대를 만났다.

※ 이 글은 2019년 월간 한국연극 10월호
공연 리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무대—정승호 Jeong Seung-ho

연극 〈노래처럼 말해줘〉 〈오이디푸스〉 〈리차드3세〉
 〈로미오와 줄리엣〉 〈데블 인사이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한강은 흐른다〉
 〈프로즌〉 〈바나와 소녀와 마샤와 스파이크〉
 〈프랑켄슈타인〉 〈햄릿〉 〈14인의 체홉〉 〈터미널〉
 〈한꺼번에 두 주인을〉 외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레베카〉
 〈엑스칼리버〉 〈닥터 지바고〉 〈페스트〉
 〈모차르트〉 〈베르테르〉 〈황태자 루돌프〉
 〈남한산성〉 〈스위니토드〉 〈렌트〉 외

오페라 〈돈지오바니〉 〈코지 판 투테〉 〈도요새의 강〉
 〈마술피리〉 외

무용 〈호이랑〉 〈더 룸〉 〈리진〉 〈봄의 제전〉 〈시 읽는
 시간〉 외

창극 〈춘향〉

수상

2020 한국뮤지컬어워즈 ‘무대예술상’ 〈엑스칼리버〉
 2019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무대예술상’ 〈엑스칼리버〉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레베카〉
 2011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남한산성〉
 2008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내 마음의 풍금〉
 2008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스위니토드〉
 2007 서울공연예술제 ‘무대미술상’ 〈벚꽃동산〉



몰리에르 원작의 〈스카팽(원제: 스카팽의 간계)〉 무대디자인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17세기의 고전미와 21세기 우리나라의 모던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17세기의 느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소 진부하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21세기의 모던함을 강조하면 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흐려지면서
 동떨어진 개념에만 치우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형태는 17세기 수레무대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되,
색감에 있어서는 모던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톤으로 미니멀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색감의 절제는 각각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풀한 의상디자인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쉽게 전환가능한 대도구를 포함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무대를 구현함으로써
밝고 유쾌한 극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4일 ~ 9월 29일

명동예술극장(초연)

2020년 9월 25일 ~ 9월 26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비대면)

2020년 10월 14일 ~ 11월 15일

명동예술극장

2020년 11월 20일 ~ 11월 2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수상

2019 월간 한국연극 선정 '올해의 공연 베스트7'

제56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스태프

원작—몰리에르 Molière

각색·연출—임도완 Im Do-wan

프로필 _ 4페이지

무대—정승호 Jeong Seung-ho

프로필 _ 22페이지

조명—신호 Shin Ho

연극 〈신의 아그네스〉〈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카프카의 소송〉〈채권자들〉〈대학살의 신〉외

뮤지컬 〈썸씽로튼〉〈잃어버린 얼굴 1895〉〈광화문연가〉〈도리안 그레이〉〈뿌리 깊은 나무〉외

무용 〈NOT〉〈라벨과 스트라빈스키〉〈무원〉〈Dromenon〉〈제의〉외

수상 2020 한국무용협회 예술대상 “무대예술상”
2019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15 더 뮤지컬 어워즈 ‘조명상’ 〈뿌리 깊은 나무〉
2014 서울연극협회 ‘올해의 스태프상’ 〈채권자들〉
2014 전국무용제 ‘무대예술상’ 〈십이 후〉

의상—유미양 Yoo Mi-yang

연극 〈한여름 밤의 꿈〉〈파우스트 I+II〉〈나비스 햄릿〉〈안티고네〉〈도덕적 도둑〉〈강아지똥〉외

뮤지컬 〈베니스의 상인〉〈언더 그라운드〉〈카르멘〉〈살짜기 읍서예〉〈아르센 루팡〉〈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청이자기〉〈스노우맨〉〈쥬데렐라〉〈폴몬티〉〈스펠링비〉〈한여름 밤의 악몽〉외

창극 〈숙영낭자전〉

수상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의상상’ 〈살짜기 읍서예〉

음악—김요찬 Kim Yo-chan

프로필 _ 15페이지

분장—채송화 Chai Song-wha

연극 〈한여름 밤의 꿈〉〈남자충동〉〈프랑켄슈타인〉〈주홍글씨〉〈메피스토펬〉〈돈 키호테〉〈오이디푸스〉〈도화만발〉외

뮤지컬 〈헤드윅〉〈젬맨스 가이드〉〈서편제〉〈캣츠〉〈오페라의 유령〉〈마리 앙투아네트〉〈위키드〉〈노트르담 드 파리〉〈이블데드〉외

기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폐막식〉외

수상 2014 서울 연극인상 ‘스태프상’ 〈한여름 밤의 꿈〉
2009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미녀는 괴로워〉

소품—김소연 Kim So-yeon

연극 〈십이야〉〈트루웨스트〉〈거미여인의 키스〉〈비너스 인 퍼〉〈라이어〉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알타보이즈〉〈친정엄마〉〈궁칠팔 새삼록〉

창작가무극 〈가운: 세상의 시작〉

음향—박경훈 Park Kyung-hoon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나의 노래〉

콘서트 〈변진섭 콘서트 ‘소품’〉〈매킷 레인 단독 콘서트〉〈재키즈 전국투어〉〈홍대 광 연말콘서트 ‘잘 됐으면 좋겠다’〉〈드림라이프 콘서트〉〈문화비축기지 콘서트〉외

기타 〈2016 찾아가는 자라섬〉〈Dingo 콘텐츠〉외

조연출—권수현 Kwon Soo-hyun

연극 [연출] 〈친구를 만들고 죽이는 방법〉〈지금은 알 수 없어〉〈12인의 고상한 사람들〉〈가족〉〈나는, 바람〉〈장롱 속의 남자〉

[조연출] 〈한여름 밤의 꿈〉〈굴레방다리의 소극〉〈보이첵〉〈관속에 매장된 6인의 이야기〉〈카프카의 소송〉〈타이피스트〉〈오! 마이 내 결혼〉

창작가무극 [조연출] 〈신과 함께〉

수상 2014 젊은연극제 청춘프린지 대상 〈장롱 속의 남자〉



만드는 사람들

출연

권은혜 아르강뜨&네린느(더블캐스트)
 김명기 제롱뜨
 문예주 아르강뜨&네린느(더블캐스트)
 박경주 실베스트르

성원 물리에르
 윤세인 제르비네뜨
 이유진 이아상뜨
 이종현 스카팽

이호철 옥파브
 홍승균 레앙드르

스태프

원작 물리에르 Molière
 각색·연출 임도완

무대 정승호
 조명 상호
 의상 유미양
 음악 김요찬
 분장 채송화
 소품 김소연
 음향 박경훈
 조연출 권수현

무대어시스턴트 김소연
 의상어시스턴트 조은비 허정윤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정빈 김병섭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김용주
 음향감독·음향오퍼레이터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유승진 유서현 정윤경
 의상진행 심새늘 김민주
 분장진행 하우연 강보경 설치현 한혜수

무대제작 무대사랑_대표 박인석
 의상제작 my무대의상_대표 유미양
 소품제작 연스테이지_대표 노주연
 악기임차 아이노스_대표 박경훈

조명프로그램머 백하림
 조명LED기술지원 정국락 윤여은
 조명팀 신경배 전규상 이상민 양상모 정호진 이견혁
 이재문 김도형 김채원
 음향팀 박해민 구예림

영문자막 번역 한국문학번역원_에퀴코리아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수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조영채 이승이
 마케팅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이경선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7기 김가은 김현기 심하린
 이화승 정예림 현석현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봄봄_대표 김은총

홍보·연습·공연사진 나승열
 홍보영상 602 STUDIO_대표 김영준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EPK영상 제공 강릉아트센터
 기록영상 디지컴코리아엠엔엠_대표 김수기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한국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효진
 매표안내원 김인혜 권소담 어주희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이지예 정해룡 빈수진 임예은
 김능연 박다연 박선준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고정윤 채지성 장지영 김나윤 김소희
 안수진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협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배리어프리 기관협력 정명주 한나래

화면해설 작가 강내영
 화면해설 내레이션 조연희
 화면해설 모니터링 김혜일 손지민 이연정 장현욱
 조현혜
 화면해설 사운드 이민섭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정채영 지영림
 제작진행 박서영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김철순 심소연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프로듀서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이정현 김유연 최윤영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이민희 인사·복무·복지 후생 |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2020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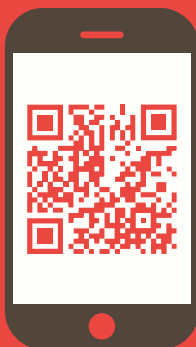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세상만사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